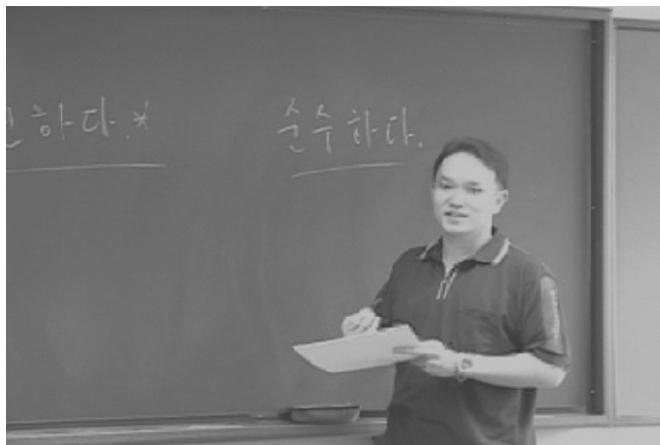


〈마이크로티칭 워크숍〉을 통한 강의 개선 화면을 통해 본 나의 모습

서동명*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서동명 씨가 〈마이크로티칭 워크숍〉에 참여하여 강의를 시연하고 있다.

강사를 위한 강의법 과정!

어느 날 교문에서 사회대로 올라오다 우연히 눈에 들어와서 신청하게 된 〈강의법 과정〉. 이렇게 〈강의법 과정〉과의 지난 학기 인연은 시작되었다. 남들보다 아주 늦게 간 균대에서 막 전역하고, 마지막 날은 박사 4학기를 다니면서, 또 서울대학교는 아니지만 강의를 해본 지 3년 6개월만에 다시 강의를 맡아 진행하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에게 이번 〈강의법 과정〉을 알

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처음에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교수와 강사’만을 위한 강의법 과정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심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해 보니 박사과정생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신청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여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참가한 강의법 과정은 ‘효과적인 강의전략,’ ‘강의개선사례,’ ‘강의를 위한 발성법’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그동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안 오직 수업의 내용 준비에만 열을 쏟았던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모든 강좌 중에서 지난 여름방학 중에 실시한 <마이크로티칭>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마이크로티칭 워크숍>의 진행 방식은 아주 단순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이크로티칭 워크숍>을 짧게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강좌에 대한 소개를 듣고, 수강생들이 돌아가면서 10분 정도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모의 강의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이 내용을 함께 보면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10분의 모의 강의를 실시한 후 다른 참가자(나는 다행히 1명뿐이었다)와 함께 살펴본 나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왜 이렇게 말이 빠르고 산만한지. 손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서 있는 모습은 또 왜 이렇게 빼딱한지. 칠판에 판서하는 것은 아무런 정리 없이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어느 정도 강의를 한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집중을 못하고, 풀고 있는 것은 아님지… . 그러면서 학생들의 텃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자책이 들었다.

또 이 시간의 장점은 강의 내용을 녹화하고, 이

를 함께 감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에 대한 평(peer evaluation)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번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칠판에 글을 적은 방법(판서법)

체계적이지 못하고 칠판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판서법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산만하게 보이는지 알게 되었다. 더불어 좋은 판서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비언어적 표현

강의를 하다 보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책만 보고, 혹은 칠판만 보고 강의를 했던 적도 많이 있었다. 또 시선과 더불어 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 함께 지적하고, 이를 고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한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알면서 하는 실수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알고서 하는 것은 이미 실수가 아닌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내가 범하고 있는 많은 실수를 알게 된 것은 이후 강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언어적 표현: 목소리 크기, 발음, 불필요한 이야기는 없었는지 ② 비언어적인 표현: 자세는 적절했는지, 몸동작이나 손동작은 어떠한지, 시선은, 학생과의 눈 맞춤은? 파워포인트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면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등이다.

혹시 <마이크로티칭>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런 것이 필요하겠어?’ 하고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멋진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듣는 것보다 ‘자신의 강의 모습’을 보는 기회를 한번 갖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이니까. 5